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2024 Vol.41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2024 Vol.41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거북인쇄공사 (051. 808. 5571)
사진제공 거북인쇄공사



표지이야기

빌라드 쥬 아난티

「2023 부산다운 건축상」 장려상 수상작

설계자 (주)에스케이엠건축사사무소 한범숙,
(주)이앤건축사사무소 탁문현

사진저작권 빌라드 쥬 아난티 피에프브이
(주) 황준하, (주)에스케이엠건축사
사무소 한범숙, (주)이앤건축사사무소
탁문현



KOSCA MESSAGE

04 권두사

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이현우
2.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

KOSCA NEWS

06 협회소식

- 제회의 및 행사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회장동정

15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18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4년 상반기 신기술 현황



08



KOSCA INFO

- 20 **전문건설인의 삶**
 - 제 79호 : ㈜비엠 대표이사 배미애
 - 제 80호 : ㈜보성건설 대표이사 변기홍
- 24 **건설산업정보(법령개정) PART1**
- 26 **건설산업정보(회원사안내) PART2**
- 30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34 **특별기고<세무칼럼>**
 -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 36 **그것이 알고 싶다**
 - 건설관련 법 상담

KOSCA TODAY

- 38 **회원사 현황**
 - 부산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 전입, 전출업체 회원사 명단
 - 회원사 변동사항(상호, 대표자변경)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 41 **협회·조합 소식**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부산시회 2024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42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건설업 아차사고 및 위험성평가 사례
- 44 **2024년 건설업 교육**
 - 교육일정 안내

KOSCA TOGETHER

- 45 **부산의 명소**
 - 오초량
- 46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피렌체 두오모 성당
- 47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힐링 북
- 49 **오늘의 트렌드**
 - 스피노프 프로젝트
- 50 **글로벌 이슈**
 - 그린래시
- 51 **슬기로운 생활 꿀팁**
 - 1인가구 생활비절약 생활꿀팁
- 52 **하루 5분 건강**
 - 건강습관 /건강음식
- 54 **독자와 함께**
 -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현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이현우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건설투자 축소와 민간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급감하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의 운영 여건 악화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 제한 입찰참가제는 물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비한 공사장 안전점검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소리소통방’ 운영과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인 여러분들도 다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건설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디지털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그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는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워지는 날씨에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전 세계적인 불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산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주요 도로, 터널, 교량, 주차, 공원, 상가, 문화 체육시설을 비롯해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만큼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 공단은 단순히 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경영목표로 전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에 발맞춰 친환경 건설을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ESG경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공동 목표인 '안전한 도시', 그리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디자인 감각이 살아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건설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혁신적인 마인드 전환과 스마트한 첨단기술력, 철저한 안전관리 예방대책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단의 부산전문건설업체 발주공사와 관련한 원도급 건수는 최근 5년간 703건이고, 기성금액이 모두 263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부산시설공단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더욱 많은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제회의 및 행사

01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4월 4일(11:30 / 이리스웨딩뷔페)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문화가 더욱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 여부를 가리고 합법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각종 관련 단체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그간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다짐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채택했으며,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에만 치중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고 적정공사비 보장과 공사기간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계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환경조성을 선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02

제31회 부산·광주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와 광주시회(회장 박병철)는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전남 광양 소재 호텔락희광양에서 양 시회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부산·광주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회 박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회와 부산시회의 친선교류행사가 올해로 서른한 번째를 맞이함으로써 양 시회 회원 간의 형제애를 고취하는 물론 영호남 지역 화합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동안 양 시회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친선교류의 장을 열어주시고 화합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양 시회 집행부는 선임자들의 훌륭한 뜻을 이어받아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광주시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 시회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긴밀한 협력관계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양 시회와 회원사 모두의 발전으로 승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03

몽골 울란바토르시 민주당 업무협약(MOU)

중앙회(회장 윤학수)와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7일(17:00 / 서면 이리스웨딩뷔페 14층) 몽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몽골 사회기반 조성사업에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개발사업 참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시 민주당과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몽골 할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협약식에서 김세원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몽골에서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 참여하여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툴가 전 대통령과 울란바토르시 민주당 툼델거 바트척트(Tumendelger Battsogt)대표도 이날을 시작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부산전문 건설업체들이 몽골의 건설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건설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4

2024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5월 9일(목) 협회발전과 대표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대표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산행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로 소백산, 지리산 바래봉과 함께 철쭉 3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황매산'으로 신촌(만월보건소)에서 영화주제공원(단적비연수찰영장)을 거쳐 황매산 철쭉군락지까지 오르는 코스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05

2024년 해외문화유산탐방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6일(목) ~ 6월 15일(토)까지 8박 10일간 스위스 및 프랑스(파리)를 둘러보고 그 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해외문화유산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문화유산 탐방에서 시찰단은 스위스 베른 알프스의 주요 고봉 중 하나로 해발 4,158m 높이의 융프라우,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레만 호수, 제네바 제트분수, 프랑스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모나코왕국,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와 브리타뉴 사이에 있는 산 마로만의 남동, 몽생미셸만 위의 작은섬에 있는 수도원, 파리 루브르박물관 및 에펠탑 등을 둘러보면서 해외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건설기술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함으로써 회원사의 견문을 넓히고, 화합과 친목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4월 4일(14:30 / 부산시청 24층 회의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최소지분율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공을 담당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율이 높아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덕도신공항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부산시와 관련 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원섭 도시계획국장은 “실시공사인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02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및 간담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4월 24일(10:15 / 강서구청 3층 회의실)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 관내 건설대기업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갖고, 협약식에 이어서 강서구 관내 시공사(11개사)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으로 건설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유동성 악화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부산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강서구와 부산전문건설협회, 관내 건설시공 4사 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실시공을 전담 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구청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하며, “우리사회도 회원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협회-건설대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하는 만큼, 참석한 건설대기업 관계자에게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0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 수수확대를 위한 2024년 현장멘토링데이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2일(18:00 / 더파티 시청점)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건설하도급 수수 확대를 위하여 지역 대형공사현장 1군 건설사 대표 및 현장 책임자를 초청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 수수확대를 위한 2024년 현장멘토링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건설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하도급 수수 확대 계획 방안의 일환으로, 대형사업장 현장 책임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세원 부산시회 회장을 비롯해 부산시, 대형건설사 현장책임자를 비롯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건설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특히 상생 멘토링을 통해 지역하도급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회원사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

2024년 상반기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 포스코이앤씨, DL건설(주), 대방건설(주), 삼성물산(주), 삼성이앤에이(주), 롯데건설(주), 두산건설(주)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2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부산시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협조 요청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협회와 부산시가 타 시·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적극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 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5

2024년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5월 21일(14:00 / 부산아시아드시티 2층 제우스홀)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공사·공단,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등 부산지역 20여 발주기관의 계약·공사감독·건설행정 담당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 공사를 비롯한 4억 3천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에도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우선 배려하여 줄 것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무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박광현 건설행정과장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 등 발주기관, 그리고 협회가 상호 협력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설산업 제도 및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발주기준」에 대한 부산사회 왕재성 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건설행정과의 「부산 건설산업 활성화 주요시책 설명」, 외부강사의 「음식과 그림이 함께하는 스페인 건축 여행」,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5월 23일(13:30 / 부산진구청 3층 회의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진구 관내 건설대기업 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갖고, 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실시공을 전담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구청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 하며, “우리사회도 회원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 고 답했다.

이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협회-건설대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하는 만큼, 참석한 건설대기업 관계자에게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당부” 하였다.



07

2024년 상반기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 방문 조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등 부산지역 내 5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장비 참여현황도 점검하여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종별 우수 전문 건설업체 명단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했다.



회장동정

01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4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부산진구(을) 이현승, 북구(갑) 서병수, 사하구(갑) 최인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각각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덕신공항 및 부산지역 민간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공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02

부산·울산시회 중앙회 대의원 윤학수 회장님과의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10일(11:20, 해운대 몽 일식당) 부산시회 및 울산시회 중앙회 대의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울산 중앙회 대의원 윤학수 회장과의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회 이재철 운영지원팀장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고 중앙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이 전문건설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소규모복합공사 부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의 주요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수주지원

01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의견제출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역기업 참여 절실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오는 2029년 12월까지 조기 개항하고 2030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공사부터 시작해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의 필수시설을 포함한 모든 지원시설을 갖추는 데 이르기까지 방대한 규모와 복잡성을 자랑한다. 이는 단순히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견인할 중요한 사업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건설업체에게 큰 기회로 다가온다. 10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에 지역 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2,400여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은 보다 많은 하도급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우리시회는 4월 24일 부산의 지역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하고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우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02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발표 안내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

- 조달청은 3월 27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시설자재가격(공통자재 6,817 항목), 시장시공가격 582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 우리 협회는 적정공사비가 설계시 확보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시설자재가격 민관 협업 TF에 참여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품목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신규품목의 가격을 발굴하여 조달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조달청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공통자재 2.04% 상승, 시장시공가격 3.20% 상승)한 시설자재가격을 발표하였다.
- 이번 결정된 가격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2일부터 공사원가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가격 정보)를 통해 누구나 질의 또는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수주지원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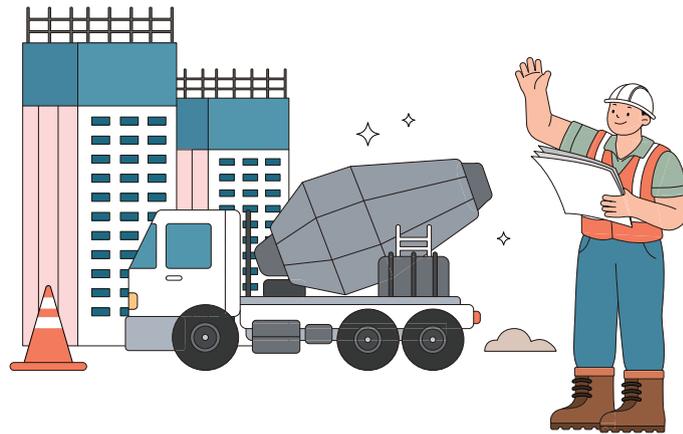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접수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여부 확인 추진

건축물 철거(해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가!!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동 건축물의 해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 공사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 일반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어 적법하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해체공사 무등록 시공에 대한 우리협회 회원사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1,500만원 미만의 건설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

하나, 최근 광주 학동 참사에서 드러나듯 건축물의 해체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적 손실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실정임에 따라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부산시회는 강조했다.

- 이에 부산시회는 5월 27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접수·검토 시 건축물 해체를 수행하는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을 통한 건전한 건설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했다.
- 더불어, 해당 구(군)청 관내 건설업 무등록 시공자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제도개선

01

외국인인력 정책 개선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4월 11일 외국인인력 정책 개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7-3) 일반기능인력 허용 직종으로 건설업 직종 추가

- 현재 일반기능인력(E-7-3)은 8개 직종에 허용되어 건설업은 미도입 상태이기에 철근공, 콘크리트공, 형틀목공(거푸집 설치·준비원, 알폼공)과 같이 기술력을 기본으로 근력 확인이 필수이며, 건설 및 제조 용접공과 같이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의 신규 도입이 필요

● (E-7-4) 전환 요건(근무처) 해석기준 합리화

-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들이 장기체류(E-7-4)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처”에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해야하는 요건 존재
- 건설업은 한 사업자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근무처” 요건을 “현장 단위”로 해석할 경우 한 현장에서만 2년 이상 활용이 사실상 곤란하여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기에 “근무처”에 대한 해석기준으로 건설업의 경우 “현장”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하여 동일 건설사업주와 고용계약 체결시 요건 충족토록 명확한 지침 마련



2024년 상반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982 (2024.01.19.)	한국석유공업(주), (주)금양건설	바탕 결속 가변형 기능성 도막재와 주름 저감형 방수시트를 전면 부착시켜 표층 분리를 억제한 복합방수공법(Poly-Top SYSTEM)	콘크리트 바탕면에 기능성 도막재와 주름이 저감된 방수시트를 동시에 포설하여 가교결합형태의 전면부착을 유도하고, 시트 간 접합부 내측에 시공장비를 사용하고 도막재와 시트 압착의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시공하여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며, 접합부 외측은 보강재로 보강하는 기술로서, 표층에서 발생하는 박리, 박락을 방지하고, 방수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현장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접합부 수밀 안전성 및 현장 시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비노출 복합 방수공법
983 (2024.01.25.)	(주)터널테크, (주)유신	연결부 및 받침 구조를 개선한 터널 강지보재 제작 및 설치공법	상반·하반 분할 굴착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상부 강지보재에 높이조절 장볼트를 사용하고 해당 볼트로 받침부를 형성하여 지보력을 확보하고, 볼트연결을 위한 연결부 상부의 슛크리트 파쇄가 불필요 하며, 안정적인 지보력 형성이 가능한 터널강지보재 제작 및 시공 기술
984 (2024.03.07.)	(주)제트콘코리아, (주)효상토건, 태정산업개발(주)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제를 선 혼합형 삼중 노즐로 동시 뿜칠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보수공법(LARM REPAIR SYSTEM)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혼합한 경량 보수재와 리튬실리케이트질 급결제를 선 혼합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를 활용하여 동시에 뿜칠함으로써, 부착성 및 내균열성, 내화학성을 향상시키고, 1회 뿜칠 시공 시 연속적으로 두께 150mm의 단면 형성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리바운드 손실을 저감하고 천장 등 수직부착 보수공사에도 적용 가능한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LARM REPAIR SYSTEM)
985 (2024.03.07.)	대박기술(주), (주)서영엔지니어링, (주)종합건축사 사무소그룹예성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슬레이트공법)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를 작업면과 평행한 상태를 만든 후, 작업대에 장착된 습윤장치로 지붕재를 습윤상태로 만들며, 해체한 지붕재를 적재대에 임시 적재 및 보관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추락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제어가 가능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공법
986 (2024.03.15.)	(주)지승씨앤아이, (주)케이제인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형단면 중심부에 관통홀을 형성한 강재 통공앵커를 사용한 교량받침 교체 공법(EF 교량받침 교체공법)	콘크리트 교량의 교량받침 교체 시 상부받침 또는 소울플레이트 철거로 발생하는 상부구조의 공동부를 예폭시로 충전하기 위하여, 원형강봉에 관통홀, 볼트결합부 및 측면지압부가 형성된 강재 통공앵커를 소울플레이트 또는 상부받침을 구비한 신규 교량받침에 볼트식으로 사전 결합하고, 신규 교량받침을 설치한 후, 통공앵커 관통홀의 하단부를 통해 예폭시를 주입하고 통공앵커 관통홀의 최상단을 통해 예폭시를 토출시킴으로써, 예폭시의 충전여부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공동부 및 앵커홀이 충전되는 교량받침 교체공법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987 (2024.03.29.)	(주)삼송마그마	재생수지를 활용한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TDM 방수공법)	배수 및 방수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내화학성과 강도가 우수한 합성고분자 재생 원료로 제조된 돌기를 갖는 친환경 URO시트 및 엠보시트를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슛크리트면의 요철 및 혼입된 강섬유로 인한 방수시트의 파단을 방지하고, 열화된 지반 보강재 및 슛크리트에서 용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켰으며, 배수용 부직포 압착 및 폐색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를 개선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공법
988 (2024.04.12.)	(주)신성이엔지, 삼성물산(주)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사워 시스템 기술	흡입구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을 고효율 복합 필터 및 UV LED 모듈을 통해 제거하며 오염물질이 제거된 청정 공기를 고성능 팬을 통해 공급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회오리 형태의 노즐과 좌우로 움직이는 회동 노즐을 이용하여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의 옷이나 신체에 부착된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실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에어사워시스템 기술
989 (2024.04.12.)	SK에코플랜트(주)	발파진동 및 여굴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다단평행천공발파공법(New SBM)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의 고유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한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터널 발파 시 최대 진동이 발생하는 심발부에 단공과 장공으로 다단 평행 천공하고, 심발부와 확대부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고 장악하여 지발당 장악량 축소 및 단계별 2자유면 확장 발파로 진동제어가 가능한 공법이다. 또한 최외곽부 및 바닥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진동 제어와 여굴 제어가 가능한 기술로 전자뇌관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
990 (2024.05.24.)	(주)시에라베이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조사 기술	회전형 라이더 및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설정한 자율주행 경로를 따라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촬영된 분할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합 후 정선한 빅데이터로 학습된 멀티스케일을 고려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구조물 공용 및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 박락, 파손, 철근노출, 백태, 도장박리 등 6종의 손상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외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표를 작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991 (2024.06.07)	인프라안전(주), 탄탄안전(주)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 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처리 기술에 기반한 교량 변위 측정 및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하천 교량과 고가 교량의 하부조건과 관계없이 변위 계측 이 가능하며, 계측기와 계측 타겟의 설치를 배제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변위 측정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설인

(주)비엠 대표이사 배미애

“
(주)비엠 배미애(62) 대표이사가 집무실로 안내한다. 그런데 널찍한 방이 썰렁하다.
책상과 소파 등 집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사무실에서 직원인 제 친구와 함께 앉아서 근무하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첫인상이 탈털하다. 크지 않은 체구에 허스키한 보이스의 그녀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전형적인 여장부 스타일이지만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수많은 역경을 헤쳐오면서 쌓인 삶의 경험치들을 오롯이 간직한 분위기를 풍긴다.



(주)비엠 배미애(62) 대표가 집무실로 안내한다. 그런데 널찍한 방이 썰렁하다. 책상과 소파 등 집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사무실에서 직원인 제 친구와 함께 앉아서 근무하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배 대표는 결혼하기 전 고향 마산에서 일찌감치 건설업에 몸을 담았다. “모래와 자갈을 취급하는 골재회사에서 10년 가량 경리와 총무를 담당했습니다. 섬진강에서 채취한 모래를 배로 실어나르던 시절이었죠.”

지금 섬진강에서는 골재 채취가 금지된 지 오래됐다. 하동 주변 지역 출신 건설인들은 섬진강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정녕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답사여행의 태두 유홍준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동에서 구례, 곡성으로 이어지는 섬진강 강변길을 꼽은 적이 있다. 그 강변을 따라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는 은모래밭은 가히 절경이라 일컬을 만하다. 강변에서 즐겼던 은어 낚시도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그 모래밭을 파헤쳐 건설자재로 실어날랐으니 견딜 도리가 있었겠나.

각설하고 결혼한 배 대표는 야심차게 자신의 사업에 뛰어든다. 남자들은 힘든 트레일러 화물사업에 남편이 번 돈과 자신이 알뜰살뜰 모은 억 단위 거액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기사도 채용했다.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돈 벌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다. 하지만 아찔! 그만 양산에서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철근을 가득 싣고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유충한 철근이 앞으로 쏠리면서 대형사고가 나버렸던 거다. 기사가 중상을 입고 입원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배 대표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현장에 달려나가야 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된지 하나도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현장을 담당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바람에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찰관은 그를 진정시킨 뒤 관련 서류 작성 등 사고 뒷처리를 성심껏 도와줬고 배 대표는 눈앞의 위기를 힘겹게 넘겼다. 하지만 화물사업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트레일러 월 할부료가 120만원에다 보험처리는 됐지만 앞부분 수리비만 2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사업을 접으면서 500만 원을 더 얹어 트레일러를 넘겨야 했죠.” 한마디로 쫓딱 망했던 거다. 그길로 배 대표는 마산을 떠나 남편 고향인 부산으로 왔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그가 아니었다. 뭐든 하지 않으면 건디지 못하는 적극성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오독이’ 기질이 그를 다시 건설 현장에 서게 했다. 철근콘크리트 회사에 다니면서 지금 함께 일하는 친구를 만났고,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또다시 과감하게 인수 결단을 내렸다.

사명을 비엠(BM)으로 정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자신의 성씨 배를 딴 B, 미의 M을 합쳐 그럴듯한 회사 이름

을 지었던 거다. 참 센스 있는 이름을 지었다는 느낌이 든다.

배 대표는 회사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현장은 전부 남편에게 맡겼다. 부부가 합심해서 뛰고 과거 총무와 경리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경영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별다른 큰 사고 없이 꾸준히 실적(연간 매출 70억 수준)을 내고 있단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세상을 부대끼면서 절실하게 느낀 가장 큰 복이 사람복이라고 말했다. “지금 함께 일하는 친구는 기쁘거나 슬플 때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들 때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저를 도와준 경찰관도 잊지 못하고요. 너무 경황이 없었던 터라 성함을 모른 게 후회되네요.” 그는 ‘열심히, 떳떳하게 살자’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든든한 인간관계를 맺고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공사 입찰 때 로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견적으로 승부한다. ‘최소 이윤으로 최대 효과를 얻겠다’는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다.

배 대표는 차마 밝힐 수 없는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렀죠.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산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이까짓 게 뭐라고!’ ‘난 아직 살아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냈다. 적자가 쌓일 때도 ‘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발명왕 에디슨이 말했다. ‘마술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마음에 마술을 부려 즐겁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라’. 배 대표는 마음에서 지옥과 절망의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다. 그래서 오독이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다. 현장 안전과 관련이 있는 야간 대학 소방학과 3학년생이기도 하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역경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게 아닐까 싶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둡지만 가다 보면 언젠가 눈부신 햇빛과 희망을 볼 것이기에.

글 최원열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설인

(주)보성건설 대표이사 변기홍

“
〈도덕경〉에 ‘유약승강강(柔弱勝強剛)’이란 말이 있다. “부드러움이 결국 강하고 센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변기홍(59) (주)보성건설 대표이사가 바로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건설인이다.
친근감을 주는 미소로 상대방을 맞는 모습이 정겹다.”

합천 출신인 그는 스무 살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원래 전기관련 업체에 취업이 목적이었으나,
작은아버지가 굴삭기장비업을 하고 계셔서 대학 졸업 후 장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4년에 부산 거북건설에 입사하면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에 몸을 담게 됐다. “한 직원이 군에 입대하면서 일주일만 임시로 일을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한 달이 넘어도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장비 일하러 가야 한다’고 사정을 했지만 ‘안된다’며 단박에 거절하더군요.” 그는 이러면 최선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이를 악물고 일을 했다. 일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유심히 본 회장님께서 그를 탐낸 것이었다. 정식 직원이 된 후에도 3년간 근무하면서 두 번이나 사직서를 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거북건설 근무 3년 동안 “회장님 및 회사동료들에게 상하수도 공사에 관한 지식이 제로 상태인 저에게 상하수도에 관한 시공 및 물의 흐름, 상수도 관련 수압이 모자랄 때 문제점을 찾는 법등 알짜배기 현장 노하우를 일일이 전수 해주셨습니다. 저의 건설인 생활이 비로소 시작된 셈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몸이 체득할 때까지 열심히 따라 배웠다.

별 보며 출근하고 달 보면서 퇴근하는 강행군이 시작됐다. 관리 파트에 있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루 서너 시간 자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2박 3일간 일에 매달려야 했던 적도 부지기수였다. 관로 시스템이 현대화된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예비관로가 없었기에 한 번 공사하면 집중적으로 매달려 단시간에 해결해야 했다. 게다가 곳곳에서 노후된 수도관이 누수가 많아 설 틈이 없었단다.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적응했다. “새벽에 나와 새벽에 퇴근하니 제집이 하숙집이었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것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지나고 보니 양가 부모님을 자주뵈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 시절이 행복했고 그립습니다.”

변 대표에게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은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인생은 나그네길/어디서 왔다가/어디로 가는가/구름이 흘러가듯/떠돌다 가는 길에/정일랑 두지 말자/미련일랑 두지 말자/인생은 나그네길/구름이 흘러가듯/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 때 거북건설에서 시공범위가 넓어 3~4팀을 맡았던 일이 그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서면로터리에서 가야, 주례 구간까지 전체를 관리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장 인력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자재와 장비 인력을 챙겨야 하고 원도급자와의 협의 하는 일이 어디 쉽던가. 게다가 관공서와 협의 중 각종 시공에 대한 변경 등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많이 배웠다’며 고마워한다. “주변 분들에 의해 많은 가르침과 배움, 밤새워 자재 부문을 공부해 3개월 만에 터득하고 주위에서도 도움을 주셨기에 하는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람스러웠죠.”

1997년 거북건설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일을 봐주던 변 대표는 새천년이 시작되던 해 마침내 독립했다. “수중에 돈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장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겨우 지

급했어요. 열심히 뛰어나서 1년 만에 다 갚았죠.”

변 대표는 운이 따른 건삶인 이라 할 만하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부도를 맞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관급 공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서 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관리 파트에서 뼈가 굵은 사업가답다. 그는 위험을 좇지 않는다. 대신 위험을 관리 하는데 힘을 쏟는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에게 2010년 부산우체국 앞 지하차도 공사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공사계획과 일정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부산시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에 초긴장의 연속이었다.

“강관 1000mm 관로 이설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 하여 도로를 막은 뒤 24시간 내 공사를 끝내야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강관을 제작하는 동시에 5m 지하로 파들어갔어요. 밀집된 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관을 피하느라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예요.” 더구나 해당 지역은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최고 2m까지 차오르기에 공사시간이 차질을 빚었다간 난리가 날 판이었다. 하지만 변 대표는 작업관리의 달인이 아니던가. 무사히 큰 공사를 마무리한 그는 이전보다 내공이 한 단계 올라서는 기쁨을 맛봤다.

지금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향후 업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시장의 상호개방 시 물량감소로 힘들어 질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게다가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관망관리 자격증도 4개나 따야 할 전망이어서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변 대표는 그러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 우물을 파야죠.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길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깊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인상 깊은 구절이 뇌리를 스친다. ‘명심하라. 평범한 자가 비범한 자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분야를 정해서 파고드는 것이다.’

글 최원열



0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384호(2024. 4. 15)】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제4조제3항)
 -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
-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제8조)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하자책임 면책
 - ※ (제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2. 개정 / 시행일 : 2024. 4.15(월) 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법률 제20401호, 2024.3.26.)을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명시 후 낙찰자 결정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2. 시행일자 : 2024. 9. 27일 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지 및 해제요건 완화(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금액 변경 : 계약금액의 40%이상 감소 → 30%이상 감소
 - 공사정지기간 : 계약기간의 50% 초과 → 40% 초과
 - * 계약해지 및 해제요건 완화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부담 완화

나. 낙찰자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시기 개선(입찰계약집행기준)

- (현행) 낙찰자가 계약체결시까지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

- (개선)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신기술 등 사용 전까지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

* 낙찰자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시기 완화로 협약체결 부담 감소

다. 종합평가낙찰제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낙찰자 결정 기준)

- (현행) 기술이행능력점수 높은자-입찰금액이 낮은자 순서
- (개선) 기술이행능력점수 높은자-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 (예가의 88%미만시) 순서

* 종합업체 원도급 낙찰율 상향으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금액 증액 기대

라. PQ 신인도 평가항목중 대기업만 적용하는 항목 삭제 등(낙찰자 결정기준)

-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 평가 삭제
- 임금 체불,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등 추가

2. 시행일

가. 입찰계약 집행기준 : 2024. 4. 1일부터

나. 낙찰자 결정기준 : 2024. 7. 1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 적용기간을 '24.12.31까지 재연장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2024.6.25.)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례기간 연장

- (종전) 2024. 6. 30. → (연장) 2024. 12. 31까지
-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기업 상황 고려

2. 특례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 기간을 연장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24.6.30. → '24.12.31.까지] * 입찰 공고일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3년 '중대재해 사이렌'을 개설하였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이렌 개시 이후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전국에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5만 3천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안전 공유 대표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자료를 한 권으로 엮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그간 사업주·안전관리자·일반 국민들에게 공유된 600여 건의 자료들이 모두 담겼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4월 8일 동 책자를 우리 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본 책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확정사례 안내

최근 공정위는 2024년 3월 15일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동의의결은 특히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

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부산사회에서는 4월 11일 동 제도를 숙지하여 원·하도급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안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기에 우리사회에서는 4월15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24. 2. 1)하여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2024. 2.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현장 별)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
- **과태료** :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안내

최근 건설·건축현장에서 사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의 건설 안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을 구축*하여 부산시회에서는 5월 16일 관련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https://kosha.or.kr/constplan/ECSAA00100M01/sitnBoardMain.do>

06 |

2024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5차)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2024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접수받고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

-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자

2. 접수기간

- (5차) 2024. 8. 5. ~ 8. 9.
- ※ 신청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신청이 선착순 조기마감이 예상

3. 교육장소

- 차수별 교육 일정 및 장소가 다르므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 참조(<https://edu.kosha.or.kr/groupedu>)

4.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https://edu.kosha.or.kr/groupedu>) → 교육신청 → 검색란에 '안전관리자' 검색 → 희망 차수 선택 후 신청

5.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원(☎1644-5656)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고충(갈등)해소까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5월 24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컨설팅 대상 : 고용허가(E-9, 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 컨설팅 신청 접수 : 2024.11.30.(토)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신청서 접수
- 참여부처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 컨설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외국인력 체류관리

- 인력공단 : 언어소통, 직장동료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 지원 등
- 안전공단 :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공인노무사 :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 문의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부산청 : ☎ 051-860-1929
- 부산동부지청 : ☎ 051-559-6638
- 부산북부지청 : ☎ 051-330-981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전자카드 단말기 업체 업무협약에 따른 임대비용 할인 등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자카드단말기 임대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회원사 혜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약대상업체 : ㈜유니온커뮤니티(대표 : 신요식)
- 주요 협약내용 (회원사 혜택)
- 협회 회원사 전자카드제 단말기 임대 비용 할인(최대 할인율 30%)
- 전자카드제 단말기 이전시 비용 할인(50% 할인) 및 신속 배송
- 협회 회원사 전용 상담 창구 운영
- 협회 회원사 대상 단말기 활용에 대한 순회 교육 등

- 단말기 임대 절차
① 회원사 전용 상담창구(1877-1103)
② 회원사 확인 및 단말기 상담
③ 단말기 임대 계약 체결
④ 단말기 배송 및 설치
- 회원사 전용 문의처 : ☎1877-1103, 내선번호 1번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의무 안내

국도교통부에서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입력을 의무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에 품질시스템 운영('22년~)

품질시스템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55조3항)
-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 종합정보망)에 입력(제60조제3항)
- 품질검사 결과를 CSI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건설사업자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1조제12의2호)

- 품질검사 대행기관(공공, 민간, 건설업체(시공사), 공사감독자(감리))
- **시범운영** : 품질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예정(6월, 1개월)
- 시범운영 기간동안 확인되는 일부 오류 수정 및 안정화 작업 수행
- **시스템 오픈**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정식 오픈('24. 7. 10.)

품질시스템 운영 일정

- **회원가입** : 미가입자 대상으로 사용자별 CSI 회원가입 진행('24. 5.~)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

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공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업체 중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고용평가 등급이 공시되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 **공시대상**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업체 중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우수업체
2. **공시일자** : 2024. 6. 28.(금)

3. 평가결과

고용평가등급	등급배분기준
1등급	상위 30%미만
2등급	상위 30%이상부터 상위 70%미만
3등급	상위 70%이상

※ 고용평가점수가 음의 수인 경우 등급산정에서 제외. 단, 전년도 고용평가점수가 10이상인 업체는 점수 상관없이 1등급 부여

4.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등급
5. **공시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s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11 |

2023년말 기준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건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할 2023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공시되었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콘
부채비율	60.46%	66.62%	72.54%	62.07%	81.35%	66.27%
유동비율	212.16 %	155.70%	152.05%	188.17%	135.71%	199.65%
구분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부채비율	58.68%	54.08%	137.60%	132.66%	125.00%	75.22%
유동비율	164.15 %	238.62%	134.45%	130.99%	135.83%	112.49%

※ 적용기간 : 2024. 7. 1 ~ 2025. 6. 30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종합공사 입찰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92.13%	143.30%

※ 적용기간 : 2024. 7. 1 ~ 2025. 6. 30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건설기술자 재배치

질의

최초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지급자재비+부가세)은 30억 미만이었으나, 현재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으로 최종 계약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시점에 현장대리인 퇴사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자 변경 사유 발생 시 공사예정금액 30억 이상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는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기준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그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국국토교통부 건설경제 전자민원 2013.7.10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보완

질의

1. 건설업관리규정에는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기관(자격을 가지고 있는 협회,회계사)에서 진단일(처분종료일/2014.4.13일)기준 심사자료(2013.법인결산 재무제표)로 행정처분이후 자료로 회계처리상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작성될 수 없고 행정처분 종료일 전달 월말재무제표로만 작성할 수있다고 하는데, 2013년도 법인결산 재무제표와 부속자료(자본 증빙자료)로도 자체 보완심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행정처분이후 자본금 보완 현금보유기간을 60일만 보유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3년도 법인결산일 포함한 60일 또는 행정처분 종료일전 재무제표 월말기준일 포함한 60일

회신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예금의 평가는 예금의 실재성, 일시예금 및 사용제한 예금 등을 확인하는게 목적이며 재무재표상 예금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대조,확인하여 예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일시예금의 평정을 위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지출내역을 확인하며,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계좌는 증빙자료 미비로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09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담변호사 김능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방위사업청장

대상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3. 선고 2013누2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개산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제출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작업일보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계약 진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금

액 조정에만 관계되는 점, ② 피고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소속 연구원들의 노무량을 산정하면서 1일 노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연구원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은 노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정해 놓은 점, ④ 이에 위 연구원들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8시간 이상을 작업하였어도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8시간을 한도로 기재해 왔으므로, 해당 연구원이 하루에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일보와 원심 판시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에 중복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해당 연구원의 작업시간 전부가 허위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위 연구원들은 이 사건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아니하고 1~2주 혹은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온 점, ⑥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작업일보의 작성 및 확인이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두 사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사업기간이 겹쳐 있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원들로서는 정확한 작업내용과 시간을 구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작업일보는 피고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소속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이 사건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건설업 실태조사와 자본금(3)>

01 겸업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계산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과 다른 등록기준 자본금을 요하는 사업을 겸하는 경우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단계는 먼저 회사의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계산한 후 실질자산에서 겸업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자산과 대응하는 겸업부채를 차감해 건설업 실질부채를 계산한 뒤,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건설업 실질부채를 빼면 최종적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타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건설업채기업진단지침 제28조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 ②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상시구분 경리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한다.
- ③ 만일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부채는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입 금액비율로 안분한다.
- ④ 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로 안분한다.

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겸업사업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먼저 자산항목의 부실자산과 수정사항을 고려해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부채항목의 수정사항을 조정해서 실질 부채를 계산합니다.
 - ② 다음으로 건설업과 타사업의 수입금액을 고려해 건설업 비율을 계산한 후 실질자산에 비율을 곱해 건설업 실질 자산을 계산하고 부채 역시 동일 비율을 곱해 건설업 실질부채를 계산하게 됩니다.
 - ③ 만일 한쪽의 수입금액이 없고 타 사업이 등록기준 자본금이 있는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 대신 각각의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겸업사업자이면 1.5대 1.5이므로 건설업 비율 50%, 겸업비율 50%가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건설관련 법 상담

【하도급계약서상 위약금과 위약벌의 판별】

갑과 을은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해 정산합의금 7억원으로 하고, 갑은 을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을은 이 공사대금 소송이 확정돼 배당금을 회수하는 즉시 갑에 그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을이 귀책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후에 을은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 중 정산합의금 7억원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1억원을 공제한 6억원을 청구했는데, 갑은 을의 약정 위반(3000만원 미지급)으로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먼저 약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이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 또는 위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위약금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을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같으므로 이 특약 역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

한편, 이 특약은 을이 3000만원의 지급약정을 위반할 경우 갑이 을에 대해 을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을이 갑에 대해 배당금 중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약벌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을이 설사 주기로 약정한 배당금 중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약했다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30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1억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액 6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한 5억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건설관련 법 상담

【하도급법상의 ‘조사시효’】

힘없는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당하면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 있는 수단인데, 3년이 지나면 시효만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은 통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의 조사시효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조사개시 시점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이지만, 직권인지 사건에 있어서는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굳이 단서가 없더라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된 경우 그때 조사 개시된 것으로 본다.

거래가 종료된 날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또는 공사완공일이며, 하도급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중지된 경우 그 해지일 또는 중지일이다.

한편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51호로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제22조 제4항이 신설돼 새로이 처분시효 제도가 도입됐다. 직권인지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시효의 적용이 없다.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는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4. 6. 30.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34	53
동구	70	114
서구	31	40
사하구	96	140
영도구	29	44
동래구	224	287
남구	123	161
금정구	291	416

지역	업체수	등록수
연제구	163	250
해운대구	290	393
수영구	144	220
부산진구	173	235
북구	110	152
사상구	151	199
강서구	297	410
기장군	233	341
합계	2,459	3,455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4. 04. 01. ~ 2024. 06. 30.)

전출업체 현황

(주)그루빅건설 (대표자: 김정규, 경남)
 바른토건(주) (대표자: 김동현, 전남)
 (주)수암이앤씨 (대표자: 손병대, 경남)
 예인건설산업(주) (대표자: 김대웅, 충남)
 (주)오성 (대표자: 조연나, 전북)
 (주)태극산업 (대표자: 임태성, 경남)
 (주)해솔테크 (대표자: 김애란, 경기)
 혁신건설(주) (대표자: 박동진, 강원)
 (주)호산건설 (대표자: 성호기, 경남)

전입업체 현황

(주)대한기술 (대표자: 이대호, 강기욱, 제주)
 새미건설(주) (대표자: 정채원, 경남)
 연우씨앤디(주) (대표자: 김성수, 대구)
 (주)이지스이앤씨 (대표자: 윤수환, 광주)
 지아이이앤씨(주) (대표자: 전영택, 경남)
 (주)케이에스지음 (대표자: 이순영, 경기)
 태현건설(주) (대표자: 권태인, 경기)
 (주)한솔피앤비 (대표자: 김미애, 경북)
 한터건설(주) (대표자: 정동일, 인천)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2024. 04. 01. ~ 2024. 06. 30.)

변경전

삼경건설(주)
 (주)에스에이치특수건설
 (주)하이브리드시스템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주)유인건축디자인

변경후

배성건설(주) (대표자: 고길순)
 (주)보광건설산업(대표자: 변지영)
 (주)보해종합건설(대표자: 권기범)
 (주)서번(대표자: 정용환)
 (주)유인디자인(대표자: 강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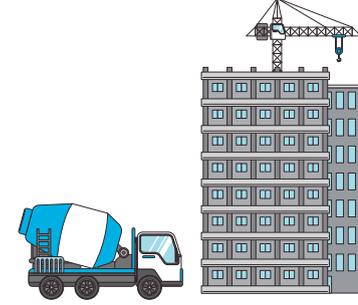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2024. 04.01. ~ 2024. 06. 30.)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거명건설(주)	임진재, 정명수	임진재	(주)아트브릭	김부경	김진수
구평이앤씨(주)	장태선	위윤환	양득건설(주)	기경학	박소연
(주)까미노	임덕연	임덕연, 박다운	에스지에스부산 다이빙(유)	리차드데이비드 실링	쿠마 사트남 싱
남경설비(주)	이원득	이원득, 이재우	에이치원건설(주)	김철훈, 김대훈	김대훈
(주)대조이앤씨	손재원	김민석	(주)에이치제이 중공업	홍문기, 유상철	유상철, 김완석
(주)동원건설	양종석	양옥나	(주)에코조경나무 병원	황보창	황보창, 오정희
민진석건(주)	이춘남	이재근	영흥건설(주)	이종호, 김미정	이종호, 김미정, 김동욱
(주)보륜건설	이미애	반명숙	(주)우량종합건설	박남길	박남길, 김택훈
보명건설(주)	유동호	유재은	(주)유성건업	신원국	김윤지
(주)부양건설	정권	정두현	(주)일우종합개발	이동준	이동준, 엄혜경
부일도장(주)	허재진	남효정	장원건설(주)	강철영	한수민
(주)비앤피건설	오완수	오완수, 윤두영	(주)지엔종합건설	박지은	강승구
(주)삼공사	정진석, 정해룡	정진석	(주)창청건설	전현진	전상우
(주)상아아이엔제이	신인재	신현숙	(주)케이에이치	양서은	손금채
(주)서번	정용환, 정석호	정용환	한국씨앤이(주)	이상호	최세렬
세도건설(주)	방세은	김도형	(주)흥림건설	강갑균	권지현
신유건설(주)	송유신	진문태	(주)희림건설	장일창	방명숙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4. 04. 01. ~ 2024. 06. 30.)

 <p>교보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63번길 9, 2층 (수안동) T : 051-525-907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유해술</p>	 <p>대승프라임(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30, 2층 (광안동) T : 051-752-8285 보유업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p> <p>장승호</p>	 <p>(주)도경이엔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천로 13번길 32-1, 2층(회동동) T : 051-526-552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신도훈</p>
 <p>(주)비아이에앤씨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98, 비 111호 (오시리아스퀘어) T : 051-722-652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신세진</p>	 <p>(주)신성이앤씨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16번길 17, 204호(감전동, 제일화물주) T : 051-901-9333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신차성</p>	 <p>(주)원픽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75번길 10, 1304호 (온천동, 동래아크로폴리스) T : 051-817-6663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이성우</p>
 <p>(주)유이에앤씨 부산광역시 서구 총무대로 255번길 9, 201호 (남부민동) T : 051-242-0754 보유업종: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p> <p>장은성</p>	 <p>(주)지상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308호(송정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 : 051-758-0407 보유업종: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p> <p>우연수</p>	 <p>청룡건설(주)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167, 2층(용호동) T : 051-611-2801 보유업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p> <p>권지연</p>
 <p>(주)파란건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5로 48-16, 104호 T : 051-867-9969 보유업종: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p> <p>서상용</p>	 <p>한라산업개발(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2로 17, 3층 T : 051-728-1165 보유업종: 철강구조물 공사업</p> <p>이형숙</p>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회원사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인 '모바일 코스카'(m.kosca.or.kr)를 최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모바일 코스카는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적용, 빠른 로딩속도를 제공하며, 모바일 신문고 앱인 '코스카톡'과 대한 전문건설신문 등 다양한 협회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한다.
모바일 코스카는 △협회 소개 △시공능력평가 △등록분포현황 △전문건설업 안내 △경영상태평균비율표 △인정기능사 안내 △건설교육센터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 방법은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메뉴-인터넷-(<https://m.kosca.or.kr>)로, 아이폰은 바탕화면-Safari-(<https://m.kosca.or.kr>)로 접속하면 된다. 전건협 인터넷 홈페이지의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5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업체 관계자 고충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닌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및 준수 사항 차등 적용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제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1년 이상의 하한형에서 0년 이하의 상한으로 변경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업무배제 및 처벌 조항 신설 △중대재해 예방조치 사업장 인증제도 신설 및 인증 사업장 처벌 감경·면제 조항 신설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은 4월 8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합사에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K-FINCO 조합원사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합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24시간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부터 수사, 공판절차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조합원사라면 조합 법률상담센터(02-3284-0478) 또는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02-3479-2651)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회 2024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4. 8. 1(목)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2024. 9월 중	제13대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업종별 전체회의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아차사고 및 위험성평가 사례

01 발파작업

작업내용

발파매트 양중

사고내용

발파매트 양중간 와이어로프 소선이 절단되어 양중물 낙하될 뻔

발생원인

작업전 와이어로프 상태 미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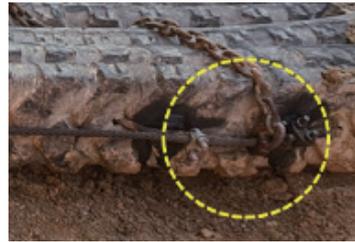
예방대책(조치내용)

와이어로프 즉시 교체

작업현장 상황 설명
(사진, 도면)



조치 전



조치 후

02 토공 정리 작업

작업내용

토사 크람셀 상차 작업

사고내용

크람셀 버킷에 토사 과적으로 낙하될 뻔

발생원인

굴착기 장비 운전원 교육 미실시, 담당 관리감독자 과적여부 미확인

예방대책(조치내용)

크람셀 버킷 용량 90%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

작업현장 상황 설명
(사진, 도면)



조치 전



조치 후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03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내용	철근 배근 작업
사고내용	철근 배근 작업간 안전대 미착용 작업자 단부구간 추락 우려
발생원인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예방대책(조치내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지급 및 2중안전고리 체결 확인

작업현장 상황 설명
(사진, 도면)



조치 전

조치 후

04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작업내용	가시설 띠장 및 버팀대 설치
사고내용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낙하우려
발생원인	안전학카 잠금장치 미체결
예방대책(조치내용)	안전학카 잠금장치 체결 실시 및 관리감독자 안전대책 이행 확인

작업현장 상황 설명
(사진, 도면)



조치 전

조치 후

2024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4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4 2024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8~10월)

교육차수	신청 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비고
		부터	까지	
제30기	8.1	8.3	8.9	
제31기	8.6	8.8	8.14	
제33기	8.22	8.24	8.30	
제34기	8.29	8.31	9.6	
제35기	9.3	9.5	9.11	
제36기	9.12	9.14	9.20	
제38기	9.24	9.26	10.2	
제40기	10.10	10.12	10.18	
제42기	10.24	10.26	11.1	
제43기	10.31	11.2	11.8	

05 2024년 집합교육 일정(8~10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29기	08월 02일	수원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30기	08월 09일	창원	•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나눔홀)
제31기	08월 14일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32기	08월 23일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제33기	08월 30일	전주	• 전주상공회의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회의실2)
제34기	09월 06일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35기	09월 11일	광주	• 광주상공회의소(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지하 1강의실)
제36기	09월 20일	수원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37기	09월 27일	대구	• 대구무역회관(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38기	10월 02일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39기	10월 11일	대전	•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제2연수관 109호)
제40기	10월 18일	제주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5층 국제회의장)
제41기	10월 25일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집

오초량

추천합니다



초량에는 ‘오초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산가옥인 ‘초량1941’, ‘문화공간수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 제 647호로 지정된 근대 건물 브라운한즈백제 카페도 있으니 부산역 인근을 둘러보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풀밭에 난 오솔길이라는 뜻의 ‘초량(草梁)’에 감탄사 ‘오!’를 붙여 이름 지어진 ‘오초량’은 1925년 일본의 토목건축업자 다나카 후데요시에 의해 지어진 일본식 목조주택입니다. 당시 일본인 가옥은 철도국 토목청부인대기소와 오초량만 존재했을 뿐 그 주변은 조선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인 기업이 태창기업의 창업주가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전형적인 적산가옥에 한국 문화의 정취가 더해져 근대 주택사와 생활사를 함께 품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2007년에는 등록문화재 제349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태창기업 산하의 일맥문화재단이 운영하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초량은 일제강점기 적이 남긴 ‘적산가옥’으로 일본식 가옥과 생활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료이지만, 동시에 부산의 문화유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찾아갈 가치가 충분합니다. 문화기획자 최성우 대표의 세심한 브랜딩과 일맥문화재단의 관리,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해석으로 적산가옥을 넘어 새로운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점은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감상을 남깁니다.

오초량은 ‘개인의 집’에서 출발한 공간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예약한 한정된 인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집과 다양한 전시는 단숨에 관람객들을 1925년으로 데려갑니다. 당시로선 너무나 화려했을 각종 치장들을 주택 곳곳에서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따라 새로운 공간을 찾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숲을 옮겨 놓은 듯한 정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호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인들의 성지

피렌체 두오모 성당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은 피렌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Cattedrale di Santa Maria del Fiore)이다.

르네상스 시대인 1296년 아르놀포 디 캄비오(Arnolfo di Cambio)가 두오모 대성당 설계를 시작한 이후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가 설계한 두오모 쿠폴라가 1436년에 완공되기까지 무려 140년의 건축역사를 자랑하는 성당이다. 성당 외관은 흰색, 분홍색, 녹색의 대리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조각상들은 비록 모조품이긴 하나 성당을 더 화려하게 해주고 있다.

두오모란 원래 돔 형식의 천정을 가진 성당을 부르는 말이나, 현재는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로써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로 3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크기의 성당이다. 돔 천장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 작품, 신타 레빠라따 성당의 잔해와 납골당 등을 내부에서 관람할 수 있고, 종탑에 올라가 피렌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냉정과 열정사이'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에게 더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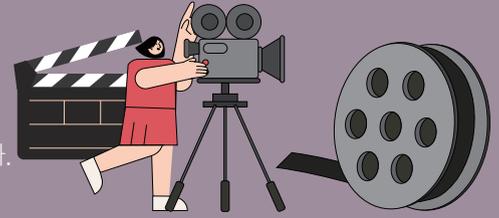
대성당 바로 옆에는 두오모 쿠폴라 만큼이나 많이 올라간다는 조토의 종탑(Campanile di Giotto)이 있다. 이 종탑은 1334년 조토(Giotto)가 건축하기 시작하여 조토가 죽은 뒤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나 피사노(Andrea Pisano)와 루카 델라로비아(Luca della Robbia) 이어서 건축하였고 1359년 프레스코 탈렌티(Francesco Talenti)가 완공하였다.

정문 위에는 거대한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네 모서리에는 파울로 우첼로가 1443년에 그린 네 명의 복음사가(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프레스코 초상화가 있다. 바늘이 하나인 이 전례 시계는 24시에 해가 질 때 끝나는 시간 주기인 "이탈리아 시각"(hora italica)의 24시간을 보여준다. 이 시간표는 18세기까지 사용되었다. 이 시계는 당시 만들어져 아직도 작동하는 몇 안 되는 시계 가운데 하나이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인사이드 아웃 2

개봉 2024.06.12. 감독 켈시 만

출연 에이미 포엘러, 마야 호크, 루이스 블랙, 필리스 스미스, 토니 헤일

디즈니·픽사의 대표작 <인사이드 아웃> 새로운 감정과 함께 돌아오다!

13살이 된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매일 바쁘게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를 운영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감정인 '불안', '당황', '따분', '부럽'이가 본부에 등장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제멋대로인 '불안'이와 기존 감정들은 계속 충돌한다. 결국 새로운 감정들에 의해 본부에서 쫓겨나게 된 기존 감정들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시작하는데...

2024년, 전 세계를 공감으로 물들인 유쾌한 상상이 다시 시작된다!



프렌치 수프

개봉 2024.06.19. 감독 트란 안 흥

출연 줄리엣 비노쉬, 브누아 마지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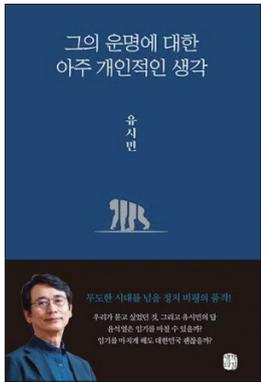
20년간 최고의 요리를 함께 탄생시킨 외제니와 도맹.

그들의 요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있다. 인생의 가을에 다다른 두 사람, 한여름과 자유를 사랑하는 외제니는 도맹의 청혼을 거절하고 도맹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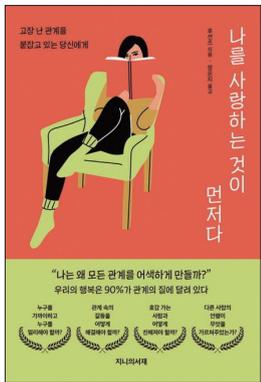
하루하루를 챗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저 | 생각의길 | 2024년 06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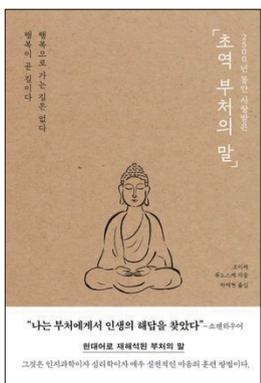
무도한 시대를 넘을 정치 비평의 품격
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 그리고 유시민의 답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
“시민들은 서로 묻는다. 집권당이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책을 썼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후선즈 저 | 지니의서재 | 2024년 06월 25일

“나는 왜 모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까?”
우리의 행복은 90%가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이 책의 저자 후선즈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를 20여 년 이상 연구하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대 심리학자로 선정됐다. 방송과 교육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권의 심리학 서적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이론에만 그치는 학자가 아니라 실제 베테랑 심리학 멘토로서 인간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상담자를 만나 총 1만 5천여 시간이 넘는 카운슬링을 했다. 탄탄한 학문적 이론과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을 훌쩍 넘어선 실제 상담 경험을 함께 갖춘 멘토로서 그 깊이를 이 책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2500년 동안 사랑받은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저 | 포레스트북스 | 2024년 05월 30일

2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회자되어 온 부처의 말을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현대어로 재해석해 책으로 출간했다. 간결하게 축약된 핵심만을 담은 부처의 메시지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부처의 말이 간결하듯 이 책의 기획 의도 역시 매우 단순하다. 저자는 서문에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어디를 펼치더라도 그곳에 적힌 부처의 말이 스르륵 마음을 물들이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일어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스핀오프란, 사전적으로 누에고치에서 실을 잣듯이 ‘파생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이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트렌드는 기존의 성공적인 콘텐츠나 브랜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스핀오프란, 사전적으로 누에고치에서 실을 잣듯이 ‘파생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이다.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의미하는데, 마블 시리즈와 같이 콘텐츠에도 ‘세계관’ 개념이 도입되면서 스팀오프는 창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팀오프 프로젝트는 기존의 성공적인 콘텐츠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2022년,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스팀오프 드라마 ‘고요의 바다’와 2023년, 삼성전자 자사의 인기 브랜드 ‘갤럭시’를 기반으로 한 스팀오프 브랜드 ‘갤럭시 북’ 출시가 대표적 사례이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스팀오프 프로젝트 트렌드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스팀오프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래시(Greenlash)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그린래시(Greenlash)’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린래시’는 친환경을 뜻하는 ‘녹색정책(Green)’과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Backlash)’의 합성어이다.

친환경 정책 도입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이 둔화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더 나아가 소요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기후위기 정책에 앞장섰던 유럽 곳곳에서 친환경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환경까지 챙기냐’는 포퓰리즘으로 시민의 피로감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8월 영국에서는 노후 공해 차량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초저배출구역(ULEZ)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생활비 부담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문제는 친환경 정책이 급변하면 한국 기업에도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올해 주요국 선거 결과에 따라 친환경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정책이란 시대적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녹색 산업에 주력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 생활비 절약 생활꿀팁

자취를 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좋은 점도 많지만,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생활비다. 가족들과 살 때는 몰랐던 생활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01. 식비 예산 짜기(가계부 작성)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 평균 158만원 정도이다.

이 중 식사는 약 28만원으로 많은 지출의 부분을 차지한다. 요즘은 물가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최근 식비 비중도 더욱 올랐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한 달 식비 예산을 짜고, 먼저 본인의 소득 규모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한 달에 얼마정도 식비로 지출할 생각인지 정한다. 특히 식비는 변동이 매우 커서, 예산을 정해 초과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작성해보고, 몇 달전과 현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해놓은 예산을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02. 배달 음식 자제하기

요즘은 1인 가구를 위한 혼밥세트나 도시락 등 1인을 위한 배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직접 장을 봐서 먹는 것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또한 배달은 배달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일주일 식단을 짜서 그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해 식비 관리를 하면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매일 장보기가 가장 좋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매일은 어려우니 3일에 한번 소량 장보기를 추천한다.

03. 정기 구독 서비스 취소하기

집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1인 가구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도 1인 가구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만약 여러 종류의 OTT 를 이용한다면 줄여보거나, 취소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달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해도 1년이면 12배 나가는 것이므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취소하는 것을 추천한다.

04. 핸드폰 요금제 바꾸기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한다. 생각보다 통신사 할인 혜택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알뜰폰 요금제도 인터넷 속도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알뜰폰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시 통신사보다 몇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



고민되는 입냄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입 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 침, 떨어진 구강점막세포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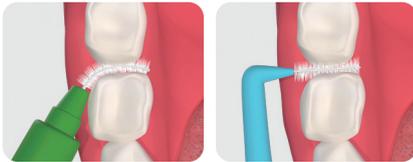
1.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치간칫솔 사용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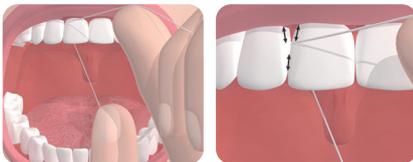
2)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상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 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모습



4) 약물 복용

황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혀닦는 방법



2.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만성질환 환자 수 19백만 명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구의 37%)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른 장 건강 개선용 프로
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도 확대



현재 발효 종균 및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쌀은 대표적인
식물성 원료

국내 식물성 식품 시장경쟁력을 선점하고 원천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부서-산업체-기술지원의 협력체계 구축·연구

우리 쌀의 새로운 이용
**'한국형 식물성 100%
쌀 요구르트'**

▶ 발효기술

쌀유래 단백질 소재인
쌀배아 보강으로 발효 효율 개선

▶ 종균개발

토종유산균 JSA22로
Lysine(필수·제한아미노산) 10배 증가

1단계

쌀 유산발효 기술 확립

쌀에 식물성 단백질원(쌀눈) 보강으로 발효 효율 개선
*(19) 특허출원 1건

2단계

토종 유산균 적용

수입 균주 대비 우수성 구명(프로바이오틱스 효과, 라이신 생성능↑)
*(20) 특허등록 3건

3단계

제품 적용 및 기술 확장

음료, 빵, 펫 푸드 등 적용 및 상미기간 1.5배 연장기술 개발
*(21) 특허출원 1건

4단계

기능성 효과 구명

유산발효물의 대사성 질환·장건강 개선 인체 적용 효과 구명
*(22-23) 공동연구

코스카레터를 읽고...

1. (주)대한이앤씨 **강영심** 대표이사

- 건설관련 법규를 비롯해 세법,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한번에 만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삼정엔지니어링 **김기령** 대표이사

- 코스카레터 협회소식지를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보는 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유익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Q 다음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 해결을 위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여부를 묻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5인 이상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1. 금후건설(주) 천미애 차장
2. 도은토건(주) 김지영 대리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에서는 원사업자가 스스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를 통해 응모(기간:2024.8.30(금)까지) 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중앙회장에게 **바** **란** **다**

I 코스카톡 앱 설치 방법

01. 안드로이드(삼성폰 등)

0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코스카톡” 검색 후 설치

또는

02 

QR코드 스캔 후
코스카톡 설치

02. ios(아이폰 등)

01 

앱스토어에서
“코스카톡” 검색 후 설치

또는

02 

QR코드 스캔 후
코스카톡 설치

0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https://sinmungo.kosca.or.kr> 입력 후 접속 

II 코스카톡 앱 회원가입 방법

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회원조회** 클릭 ⇒ **비밀번호 2회 등록**(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자리 입력) ⇒ **가입완료**

- ※ ID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부여되며, 회원사당 1개 ID만 가입 가능
- ※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ID(사업자번호)·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타기기 (동시접속 가능)에서 로그인 후 사용 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